

“주님!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 성가복지병원 원장님과 병원에 계신 모든 분께 올립니다. -

조정희 아가다

“2009년 4월 22일”

이 날은 저에게 가장 슬픈 날입니다. 딸 송민선 소화데
레사와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만
나기 전까지 고단했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1년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항상 마
음에 두고 있었던 성가복지병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
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3월과 4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
것도 둘 다 백혈병으로.

2002년 10월 22일 아들의 수능시험을 보름 앞두고, 딸
아이의 온몸이 팔알처럼 거뭇거뭇하여 동네 병원으로 갔
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큰 병이 아닐지 바라
며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급성 백혈병
이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순간 앞이 안보일 정도로 깜
깜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결혼할 때부터 간염으로, 코 수
술과 귀 치료 등 병원 치료를 밥 먹듯 하던 중, 또 재생불
량성빈혈에 걸려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으니까 병에 대하
여는 답답해져가고 있던 차에 딸아이의 백혈병 진단은 날
벼락 같았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나이는 20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나열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원망하면서 치료를 의사 선생님한테
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딸아이가 불쌍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남
편과 딸의 병원비도 막창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핍박해지

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지기 시작해가고 있을 즈음이었습
니다. 2004년도에 아들까지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재생불
량성빈혈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을 원망할 힘
조차 없어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 세 사
람을 바라보는 저는 점점 견디기 힘들고, 무슨 말만하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하니 더더욱 제가 살아갈 이유
조차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의미
한 것 같았고 정말로 살기 싫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먼동
뜨기 전 새벽에도 살려달라고, 제발 내 남편을, 내 딸을,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삶을 살려주시길 기도하고 기
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빠의 백혈병은 더 진행되
고 혼수상태가 되어 살 가망이 없어져가고 있었고 딸아이
마저 유방과 자궁으로 전이되어 얼마의 삶을 더 살 수 있
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남편은
2009년 3월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저 혼자 남아 아이의 일을 치
뤄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민선 아빠를 보내고 한 달!

민선이도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복수를
빼고 다른 검사를 받고 하면서 입원실의 부족으로 입원대
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던 중 4월 7일 제가 전에 모시던 교
장선생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민선이가 처
음 발병할 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또 많은 분들의 헌

혈을 받아 치료 받도록 적극 도와주신 분이셨으며, 신앙이 깊은 천주교 신자로 연령회와 성가복지병원에서 10년 가까이 봉사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니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굵은 눈물만 푹푹 떨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4월 15일 밤 2시쯤 갑자기 아이가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이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직감적으로 아이에게 닥친 상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치료받았고 장례를 치른 원자력 병원으로 갔으나, 그곳에서는 아이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인지, 아니 그보다도 아이가 이제 생의 기간이 얼마 안남아 보였는지 “요양병원으로 가든지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든지” 하라고 차갑게 말씀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앰블런스를 불러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휠체어를 갖고 오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다녀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 침대 하나 배정받는데도 3일정도 걸립니다. 복수가 차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움직이기 힘든 아이를 보고…… 참다못해 소리쳤습니다. “침대가 없으면 다른 병원을 연계시켜 달라고…… 의뢰서도 안 써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것도 8년째 이 병원을 다닌 환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의뢰서를 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건네지는 “의뢰서”

그런데 “어디로 가야하지? 알아본 요양병원도 없는데……” 망연자실하게 응급실 문밖에서 우두커니 서 있을 때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꼭두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는 교장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웬지 모르게 교장선생님께 연락드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의뢰서’를 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원자력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저보다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원자력병원은 어이 없어하는 표정이었고 아예 의사는 기분이 너무 나빴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골치 아픈 환자 보냈는데 다시 왔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

거나 말거나 난 간호사를 붙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파하니 진통제라도 좀 놓아 달라고…… 조금만 침대에 누어 주시면 지금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으니 옮기겠다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간호사도 딱한 사정을 보고는 의사와 상의하여 아이에게 진통제를 한 대 놓아 주었습니다.

그사이 교장선생님께서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성가복지병원에 연락을 하여 입원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4월 15일 오전 11시경 성가복지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몇 시간이 나에게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회오리바람이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호스피스 입원실로 들어가니 수녀님들과 봉사자들이 너무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배에는 복수가 차고,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심해져가고 있었지만 딸아이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편안하다며 봉사자들과 장난도 치고 수녀님들과 대화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3일을 보낸 다음 날, 아이 아빠 49재였습니다. 딸아이는 49재에 아빠한테 가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오늘은 나를 안 아프게 해주시나봐, 조금 숨 쉴 수 있을 것 같네”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봉사자들이 깨끗



하게 목욕을 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개운하다며 그날 밤에 난 딸아이와 오순도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이는 많이 아프기는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좀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엄마로서 딸아이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복수 좀 빼주면 안될까?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

난 아이의 눈을 쳐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민선아! 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엄마가 네 동생들 키워놓고 너 따라갈게”

순간, 정적이 흘렀고, 민선이도 나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딸아이는 아무 표정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에게 용서와 참회와 사랑을 표하며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에 대해서 처리 해달라는 당부를 찬찬히 했습니다.

“근데 민선아, 여기 병원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여기서 네가 세례를 받고 가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난 너무 좋아” 하고 답했습니다. 때마침 원목실에 계신 이노렌조 수녀님께서 병실 방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미 ‘소화테레사’로 세례명을 정하고 기다리셨다고 하시면서 그 밤에 수녀님은 교리를 해주셨고, 아이는 너무 편안하게 좋아하면서 수녀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고 아이도 그 세례명을 좋아했고 나 역시 놀랐습니다. 친정 엄마 세례명이 테레사였고 아이에게 외할머니 세례명을 말한 적이 없는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봉사자이신 이희자 모니카 자매님을 대모로 모시고, 병원에 계신 수녀님들과 병실에 계신 환우들이 모두 모여 수녀님께서 대세를 주셨습니다. 나 또한 만삭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 아이의 배에 오른 손을 올려놓고 왼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때에 갑자기 딸아이의 몸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는 뜨거운 불같은 것이 온 가슴에서 막 불타올라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한가득 벅차고 딸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딸아이와 나를 동시에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한 체험을 하네” 하는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입원한 후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방문해주신 교장선생님께서도 딸아이가 세례 받음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워하며 통증으로 잠도 잘 자지 못하던 아이가 병원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잠을 자는 것을 보면서 마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엄마, 꿈을 꿔는데 참 이상해, 머리를 파마한 것처럼 구불구불하신 분이셨는데 오셔서 나를 보고 계셨어. 뭐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안 나는지 머리만 가우뿍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네가 ‘소화테레사’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녀님께서 너를 보러 오셨나보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 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런 체험을 수녀님과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모두 “예수님께서 민선이에게 오셨었네. 축복 받았네” 하셨습니다. 이후부터 아이는 서서히 눈동자가 아주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고 간간히 정신을 아주 조금씩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지 봉사해주시는 간호사들이 임종실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위험의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임종에 대비해서 수녀님들께서 모여 주셨습니다. 21일 화요일 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왔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친구들에게 유머를 던져 마지막 웃음을 주고 친구들과 과의 이별을 나누던 딸, 그리고는 완전히 혼수상태로 빠져 들었습니다. 혼수상태 속에서도 아이는 복수가 너무 힘들었는지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손을 앞으로 쪽쪽 내밀었습니다. 이상한 행동에 아이를 살펴보았더니 그렇게도 차올라 빠지지 않았던 복수가 소변처럼 완전히 다 빠져 있었고 아이는 너무 시원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팔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혼수상태로 들어가더니만 다음 날 22일 오전 11시 8분에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몸속에 있었던 암세포 덩어리들을 다 토해 내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우리 딸아이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나 봅니다. 이후 아이의 얼굴은 꼭 숲속의 공주가 자고 있다는 동화처럼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고 살아 숨 쉬는 모습의 얼굴 빛이었습니다. 도저히 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뽀얗고 예뻐했습니다.

장례를 위해 변동성당의 영안실을 흔쾌히 승낙해주셨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노원이어서) 노원성당 신부님께서 장례미사 집전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변동성당 교우 분들이 오셔서 연도를 해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장례일까지 노원성당, 미아성당, 창 4동성당, 수락성당의 교우들이 서로 연결하여 끊이지 않는 연도를 나흘 내내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대세만 받은 아주 조그만 여자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연도 축원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은총이었으며 축복받은 하늘나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성당에 잠깐 나갔던 것을 빼고는 성당에 가 본적이 없었는데 이런 은총을 주시다니, 나의 두려움을 이렇게 말끔히 없애주시다니…….

그런데 또 우연치고는 너무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원성당의 연령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내가 처음으로 발령 받은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27년 전의 만남이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딸아이의 모든 일과 현재 아들의 상태까지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상황들은 노원성당 연령회장님께서 노원성당 신부님께 전해주셨고, 그때에 노원성당에는 신부님 친구 분으로 가톨릭대학교 총장 임병헌 신부님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아픈 몸이지만 가톨릭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기에 제가 아들 몰래 사정을 말씀드리는 탄원서를 보냈었는데 그때 총장님께서 승낙하셨다고 하여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도록 배려해주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총장 신부님께서도 노원성당 신부님과 같이 장례미사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벽제의 화장 일정 관계로 나흘 만에 장례를 치루게 되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때마침 부산가톨릭신학대학교 총장신부님께서 노원성당에 오셨다가 함께 미사 해주셨는데, 많은 교우들도 놀랐고, 대세만 받은 민선이 장례미사에 세 분의 신부님께서 함께 한 것은 분명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은 조금 빨리 하느님 곁으로 갔지만 큰 축복을 받았다”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이런 기적에,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교장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혼자 겪어야 하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외로움도, 공포도 없게 만들어주셨고, 많은 이들로부터 위로와 평안의 안식을 기도 받으며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드리며 지금도 생각하면 하느님의 은총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딸을 통하여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고 매일 매일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생활하는 나로 바꿔 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는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애써주신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은인들과 친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성가복지병원에 계신 수녀님, 간호사님, 그리고 호스피스 봉사자님과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 많은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